

# 韓國男便과 婦人들의 커뮤니케이션 類型 分類에 對한 研究

— 서울시 居住 男便과 婦人들을 對象으로 —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Styles of the Husbands and Wives in Korea

慶熙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慶熙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研究助教 : 李 昌 叔

副教授 : 劉 永 珠

*Dept. of Home Management*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Home Economics*

*Kyung Hee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Assistant : Chang Sook Lee*

*Associate Prof. : Young Ju Yoo*

### 目 次

####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2. 研究의 目的
3. 研究의 制限點

#### II. 理論的 背景 및 先行研究의 考察

1. 커뮤니케이션의 概念 및 機能
2. 커뮤니케이션의 分類
3. 夫婦間 커뮤니케이션에 對한 先行研究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1. 測定道具

2. 研究對象의 選定
3. 測定方法 및 資料處理

#### IV. 結果 및 解釋

1. 研究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2. 問項分析
3. 要因分析
4. 要因命名

#### V. 要約 및 結論

####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communication styles of the husbands and wives in Korea.

The instrument of this study was questionnaire which was made through the three times' pre-research by the researcher. In the pre-research, husbands and wives were asked what were the communication styles in their daily life. Among the gathered data 55 items were

chosen by the frequency of the communication styles.

The subjects were 240 husbands and 264 wives who lives in Seoul.

In this study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examined :

- 1) What are the communication styles of the husbands ?
- 2) What are the Communication styles of the wives ?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method described below with SAS and SPSS computer programs.

- 1) To find out general character of the subjects, frequency distribution and frequency percentage should be computed.
- 2) To analyze items of the scal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respective items should be computed.
- 3) To extract factor of the respective group, the procedure of factor analysis should be applied.
- 4)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respective factor, Cronbach's  $\alpha$  should be computed.
- 5) To notice the differences in background variables, the analysis variance should be computed.

The conclusions derived from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The communication styles of the husbands group were categorized into authoritarian style, contactful style, sincere style, speculative style, other-oriented style.
- 2) The communication styles of the wives group were categorized into authoritarian style, sincere style, other-oriented style, sacrifice style, speculative style.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人間의 커뮤니케이션 行爲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役割을 하게 되고 이에 맞추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行爲도 달라지기 때문이다(홍기선 1986).

이와같은 特性을 지닌 커뮤니케이션 行爲가 '家庭'이라는 人間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커뮤니케이션 行爲는 家族이 지니는 고유의 特性에 의해 다른 커뮤니케이션과는 相異한 모습을 보이며, 또한 家庭안에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따라 內容과 質과 形式이 달라 진다고 볼 수 있다.

家族은 실로 人間生活의 기초 중의 기초가 되는 社會集團이며 家族 없이는 人間이 존재할 수 없으며, 社會 자체도 存在할 수 없다. 家族이 이처럼 중시되는 이유는 個人的 측면에서는 다른 社會集團이 할 수 없는 특유한 機能을 家族이 수행하기 때문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 社會의 維持·存續을 위해 家族 이외의 그 어떤 集團도 대신할 수 없는 機能을 家族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박혜인 1986).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家族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行爲를 研究해 본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現代 家族은 그 안정성과 지속성이 주로 夫婦關係에 의존되며, 夫婦間의 相互關係가 그 중추를 이루므로 夫婦關係는 現代 家族의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된다(유영주 1985). 또한 夫婦關係는 만족스러운 相互間의 人格的 接觸을 위하여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차원이 있는 한편, 家族이라는 세도화된 集團生活에 필요한 家長으로서 또 주부로서의 책임이 있다(이효재 1985). 이러한 役割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夫婦는 수많은 相互作用을 통하여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들의 家庭이 전 家族員의 행복한 生活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過程에는 무엇보다도 한쌍을 이루고 있는 두 個人의 人格이 올바르게 相互作用되어야 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個人의 전 人格間의 올바른 相互作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媒體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提起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理論的 근거에 의해 한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elkin과 goodman(1980)에 의하면 안정되고 지속적인 夫婦關係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핵심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夫婦間의 能力이며, 배우자의 요구가 변화되고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요구가 변화하는대로 結婚生活의 역할에 適應할 수 있는 夫婦의 能力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夫婦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夫婦間의 효과있는 커뮤니케이션은 夫婦關係를 안정되고 굳건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Richard Udry(1966)는 커뮤니케이션의 결핍이 結婚生活을 不幸하게 하는지 不幸한 結婚생활이 커뮤니케이션의 결핍상태를 가져오는지는 確實치 않지만 커뮤니케이션이 結婚生活을 成功的으로 이끄는 열쇠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Raush, Greif와 Nugent도 가장 호혜적인 夫婦關係란 각자가 다양한 個性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서로가 허용하면서 상호보조적이고 조화된 커뮤니케이션 類型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Adams 1980 재인용).

최신덕(1973)은 現代의 結婚生活이란 각기 個性을 소유한 두 사람의 動的인 適應의 연속이라고

하였으며 “適應의 연속”이란 어떠한 한편만의 노력이나 適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조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夫婦가 隔意없는 커뮤니케이션을 끊임없이 나눔으로써 이룩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理論的 근거에 의해 夫婦間의 올바른 相互作用에 影響을 미치는 중요한 媒體로써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출해 낼 수 있겠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라 해서 모든 夫婦關係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問題解決能力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때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葛藤이 야기될 수도 있다. 즉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일때 비로소 夫婦의 相互作用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이정우, 안동선 1984).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夫婦間의 相互作用을 研究함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研究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研究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이 분야의 한 부분으로서 韓國 夫婦들의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類型별로 分類해 봄으로써 夫婦關係의 일면을 고찰하고 夫婦 問題 解決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研究의 自的

本 研究의 目的은 夫婦들의 커뮤니케이션 실태를 조사하여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類型을 분류함으로써 夫婦問題의 일면을 파악해 보고자 함이다.

夫婦들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이 不調和 현상을 초래할 때 그들 關係는 불만과 갈등으로 악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한 家庭의 안정과 행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問題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면서도 效率的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요청되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이와같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韓國 夫婦들이 어떠한 類型으로 夫婦間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일차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

고자 한다. 구체적인 研究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남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類型으로 분류되어 지는가?

(2) 도시 주부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類型으로 분류되어 지는가?

### 3.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는 研究方法 그리고 研究過程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制限點을 지니고 있다.

(1) 研究對象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夫婦들을 추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韓國 夫婦들이라는 것으로 一般化하여 解釋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2) 本 研究는 한쌍을 單位로 하여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기보다 남편, 주부들을 각각 別個 集團으로 單位化하여 커뮤니케이션 類型을 추출하는데 그쳤기에 研究가 다소 평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本 研究에 사용된 尺度는 3차례의 실제조사와 예비조사 및 門項分析을 통해 작성되었지만 研究能力의 한계와 研究對象者의 지역적 한계로 커뮤니케이션의 屬性이 전부 제시되었는 지에 대한 의문을 提起할 수 있다.

(4) 커뮤니케이션 類型 命名에 다소 研究者의 主觀이 들어 갔기에 그 命名의 객관성에 의문을 提起할 수 있다.

## II. 理論的 背景 및 先行研究의 考察

### 1. 커뮤니케이션 概念 및 機能

#### 1) 커뮤니케이션의 概念

각 家庭에서는 家庭이 지닌 問題들을 解決해야 할때 家庭에 필요한 규칙(rule)들을 발전시켜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規則들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며,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를 明確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광대한 일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 진다(Adams 1980 재인용). Adams (1980)는 커뮤니케이션은 자기노출(self-disclo-

sure), 자기보고(rapport), 감정이입(empathy)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概念이 학자에 따라, 조사지역에 따라, 조사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에 여러가지 난점을 초래하고 있다.

英語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말은 원래 “共通” 또는 “共有”라는 뜻을 지닌 라틴語의 “communis”라는 單語를 그 語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말은 文字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有機體(organism, 사람, 動物등)가 다른 有機體들과 知識, 情報, 意見, 信念, 感情등을 “共有” 또는 “共通化”하는 行動이다(차배근 1980). 여러가지 달리 定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概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dams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말하는 內容과 그것을 말하는 方法을 포함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자기노출(self-disclosure), 분위기, 表情 그리고 수신자의 偏見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송말희 1986 재인용).

Bienvenu, Millard. S. J.(1967)는 커뮤니케이션은 살아있는 生物사이의 感情, 態度, 事實, 信念, 見解를 전달하는 相互間의 感情이며 人間 相互間의 커뮤니케이션은 個人이 서로간에 影響을 미치고 理解하는 모든 手段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Gross, Crandall, Knoll(1980)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個人間에 情報가 교환되는 過程이라 定義하고 인간체계는 基本的으로 情報過程化의 體系(information-processing system)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커뮤니케이션은 家族이 자기 이미지를 발달시키고 社會內에서 하나의 單位로 行動함으로써 생겨나는 過程의 부분이라고 하였다.

Noel Gist는 社會的 相互作用이 象徴의 使用에 의한 意味의 傳達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 부른다고 하였다(장병림 1984 재인용).

G. Myers와 M. Myers에 의하면,

첫째로, 커뮤니케이션은 個人의 人間性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關係를 발전시키는 媒介體이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은 자극과 반응, 수신자와 송신자, 메세지, 記號化 過程, 記號解讀過程, 되돌림(feedback), 自覺(self awareness), 자기표현(self disclosure)등으로 構成된 人間關係의 媒介體이다.

세째로, 커뮤니케이션은 過去, 現在, 未來를 거쳐 계속된다

네째로, 커뮤니케이션은 對人關係에서 순환적인 過程을 통하여 지속되므로 相互間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다섯째로, 커뮤니케이션은 態度, 생각, 思想, 느낌등을 전달하는 媒介體이다.

여섯째로, 커뮤니케이션은 言語的, 非言語的인 方法으로 傳達된다고 하였다(송성자 1985 재인용).

Bienvenu와 McClain(1970)는 그의 연구보고에서 커뮤니케이션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理解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觀點에서 問題를 보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觀點 差異를 알기 위하여 자기의 느낌과 意味를 相對와 교환하는 方法이라고 하였다.

김수자, 김정인(1984)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社會生活에서의 言語的 行動뿐만 아니라 非言語的 行動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相互作用(interaction)”이나 “상호교제(transaction)”를 意味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사람들이 意味를 주고 받는데 使用되는 모든 象徴的 부호와 몸짓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장병립(1984)의 정의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은 人間과 人間사이의 빈틈에나 橋梁을 놓는 행동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媒介役割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통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相互作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면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相互作用을 가능하게 만드는 手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

였다.

이와같은 커뮤니케이션은 여러학자들이 보는 觀點에 따라 각기 定義를 달리하고 있지만 一般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定義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基本的인 要因을 전제하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전달자(communicator)

둘째로, 전달받는자(communicant)

세째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및 방법(The content and the method of The communication)이다.

本 研究에서 정의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외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態度的 측면을 동시에 양립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言語를 통한 行動的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밝힌다.

## 2) 커뮤니케이션의 機能

人間들이 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는 質問은 “人間들이 왜 먹느냐” “왜 자느냐”하는 것과 같은 바보스러운 質問이라고 Schramm(1973)은 말하고 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이 自然 發生的이며 필수적이고 人間이 活動하는 모든활동에 常存附隨(omnipresent)되는 行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人間에게 자연 발생적이고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機能을 갖고 있는가?

유영주(1985)는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커뮤니케이션의 機能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文化 傳達의 機能으로서 文化 傳達의 機能이란 人間の 文化의 傳達은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先人の 經驗을 전달하는 것으로 말의 기호화, 상징화, 문자의 표시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것이 人間에게 통찰력, 판단력, 추리력, 활동력을 배양케 하며 자연을 극복하고 文化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는 人間關係 조정의 機能으로서 社會는 變化, 安定의 두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人間이 個體의 만족뿐만 아니라 他人에 대한 봉사성, 연대성을 유지할때 비로서 人間關係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기술적, 정책적인 社會構造 變化는

個人的人間關係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役割을 한다고 하였다. 즉 家族 内에서는 세대차가 생기게 되고 廣域사회에서는 기대와 현실변화가 일치되지 못하여 각 구성원 사이에 葛藤이 초래되는 바, 이때 원만하고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은 變化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선별 能力을 길러 주고 어려운 可變的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 人間間的 단결, 계속성을 維持케 한다고 하였다.

Gross, Crandoll, Knoll(1980)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은 家族行動의 基本的 양상으로서, 家族의 목표설정, 목표성취 그리고 家族行動의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個人的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의 지적, 정서적 存在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호흡이나 음식물의 役割에 비할 수 있는 生存體系의 基本的인 過程중의 하나이며, 對人關係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서로 關係를 가지고 이것이 각자의 生活이나 협력적인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J. Thomas에 의하여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를 傳達하고, 수신자에게 行動을 지시하는 機能을 하며, 커뮤니케이션의 目的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즉 言語的, 非言語的 方法으로 메시지를 주고, 수신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수신자가 어떤 行動을 하거나 혹은 變化하도록 설득하는데 目的이 있다고 하였다(송성자 1985 재인용).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은 인간들의 삶의 현장을 원활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가 그 기능이 행해지는 모든 영역에서 기능이 원활히 作用되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표 1.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분류

감정표출의 정도	언어화의 정도	
	閉鎖的	開放的
낮은 情緒表出	차단형	분석형
높은 情緒表出	억제형	친숙형

## 2. 커뮤니케이션의 分類

### 1) Hankens, Weisberg, Ray에 의한 分類

Hankens등(1977, 1980)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夫婦間的 커뮤니케이션樣式은 言語化의 程度와 情緒的 感情表出의 程度에 따라 4가지로 分類하였다.

#### ① 遮斷型(Conventional style)

問題를 감추거나 회피하여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言語로 나타내려 하지 않으며 感情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아 情緒的 沒入의 상태를 거의 보이지 않으려 한다. 가벼운 농담이나 날씨 등에 관한 이야기만 함으로써 自身の 문제와는 상관없는 단지 相對方과의 關係만을 유지하려 할 때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樣式이다.

#### ② 抑制型(Controlling style)

相互的으로 상대방과의 충분한 意味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 閉鎖的이며 거부적인 態度를 보이며 어떠한 問題에 대해 명확하게 言語로 表出하지 않는다. 암시적으로 감정의 상태가 높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客觀的인 問題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 ③ 分析型(Speculative style)

여러 側面에서 問題를 탐구하고 分析하며 他人의 의견이나 觀點이 본인과 相異해도 존중해 주는 開放的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信念과 思考에 대해 명백하게 言語로 表出하며 순간적 감정상태에 沒入하지 않는다.

#### ④ 親熟型(Contactful style)

情緒的으로 풍부한 상태를 보이며 자신의 內的 事實과 經驗을 명백하게 開放的으로 言語를 통해 表出하며 情緒的으로 강한 沒入을 보인다.

### 2) Virginia Satir에 의한 分類

Satir(1972)는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要因을 신체, 價值的, 期待, 감각기관, 말하는 能力, 두뇌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要因을 기초로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을 5가지로 分類하였다.

1) 順從者(Placater)

무조건 相對의 의견에 동의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는 가치없는 存在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의 態度는 無力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態度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를 강한자라고 여겨 주기를 바란다.

② 理性主義者(Computer)

지나칠 정도로 合理的인 말만 하며 그의 態度는 조용하고 차며 항상 올바르다. 결코 感情은 내 보아는 일이 없으며 기계처럼 行動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는 상처 입기가 쉬운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한다.

③ 떠벌이(Distracter)

부적절한 말을 산만하게 늘어 놓으며 센스가 없고 요점을 지적하지 못하며 그의 態度는 目的이 없다. 理由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왔다갔다 한다.

④ 說得者(Leveler)

자극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며 自尊心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說得者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지나치게 합리적인 態度를 취할 필요도 느끼지 못 한다. 이런 態度를 가진 者는 사과를 하더라도 行動 그 자체에 대한 사과이며 評價나 批評을 할 때에도 人間을 批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行動을 비평한다.

3) 송성자에 의한 分類

송성자(1985)는 커뮤니케이션중 逆機能的 커뮤니케이션 類型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分類하였다.

① 勸威指尙의 커뮤니케이션 類型

韓國人의 성격에서 두드러지는 權威意識은 전통적 家父長的 家族構造에서 각자의 個性을 무시하고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에 의하여 家庭의 和睦을 유지하였다. 勸威의 구조가 경직된 下尙構造를 이루고 있을때 勸威의 밑에 있는 사람은 勸威있는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行動하려 하고 진정한 意思傳達를 할 수 없다. 勸威적인 성격은 관례적, 냉소적, 파괴적, 공격적, 세력중심적 行爲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열등감, 무력감, 個

人의 無意味때문에 권위적 行動을 취하는 것이다.

② 小心指尙의 커뮤니케이션 類型

韓國人의 커뮤니케이션 類型 가운데 과거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性尙을 포함한다. 이런 類型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경향이 있으며 불평과 불만이 많고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悲觀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長點보다 短點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合理的인 것을 추구하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비사교적인 경향이 있다.

③ 不誠實指尙의 커뮤니케이션 類型

이것은 家父長的 家族構造와 집을 중요시하는 價値觀 그리고 家族構造內에서의 序列意識등 전통적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대한 방어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은 이 類型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 類型은 형식적이며 체면을 중요시하는 類型을 意味한다.

④ 犧牲指尙의 커뮤니케이션 類型

가문을 중요시하며, 남존여비思想, 序列意識, 집안의 和睦 등을 위한 個人의 희생등 전통적 價値意識등은 地位가 낮은 사람 특히 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다. 勸威者에 대한 의존과 희생은 약자 특히 韓國 女性의 커뮤니케이션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송성자의 分類는 그 기준이 韓國 家族構造, 韓國人의 性格, 價値觀, 韓國 家族의 性格등 주로 社會心理學的 要人에 의해 分類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夫婦間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先行研究

1) 國內 研究 동향

家族 研究에서 現在까지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研究들의 경향을 주로 국내 研究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研究를 살펴보고자 하는 理由는 家族學 研究에서 本 研究의 위치를 재정리해보고 앞으로 家族學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研究에 좀 더 촉진적인 자극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 있는 內容들을 다음과 같이

4가지 범주로 分類하였다.

첫째로, 가정주부들의 態度, 價値觀, 生活에 관한 研究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內容을 일부분 다루고 있다. 이에 속하는 研究들로는 이은죽(1969), 정충량 이효재(1970), 이미숙(1978), 김은주(1979), 최정혜(1981)등의 研究가 있다.

이은죽은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이 家族의 生活週期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으며, 정충량, 이효재는 夫婦들이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느정도 滿足하고 있는가를, 이미숙은 부부화합의 役割로서 夫婦間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態度를, 김은주는 대화의 정도, 대화시의 주도권, 대화시의 공통점을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을 비교 하였으며, 최정혜는 夫婦關係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 보기 위해 夫婦의 대화범위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 보았다. 이러한 研究들은 研究의 극히 일부분으로서만 커뮤니케이션 問題를 취급하고 있다.

둘째로, 結婚生活의 適應, 滿足度, 幸福度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 있다. 이에 속하는 研究들로는 유은희(1974), 오명숙(1979), 권정임(1981), 김현주, 이선미(1982), 박경자(1982), 김은숙(1983), 김쟁산, 전영수(1983), 정용재(1985), 송말희(1986)등의 研究가 있다.

유은희는 結婚適應의 하위변수로 夫婦間 의견일치도를 묻고 있으며, 오명숙은 結婚適應의 요인으로서 커뮤니케이션요인과 의견일치요인을 포함시켰으며, 권정임, 정용재, 김쟁산, 전영수는 結婚滿足도를 알아보기 위해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요인을 관련시켜 대화시간, 대화횟수, 대화내용, 대화방법등을 파악하여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程度가 結婚滿足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 보았으며, 박경자는 가정관리과정에 있어서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을 調査하여 이것이 夫婦들의 幸福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 보았으며, 송말희는 도시 주부의 커뮤니케이션 理解도와 그들의 結婚滿足도와의 상관관계를 研究하였다. 이들의 모든 研究는 커뮤니케이션을 結婚滿足이나 適應이나 幸福에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두 변인의 상관관계를 研究하였다.

세째는,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한 중심적인 研究이다. 이에 속하는 研究들로는 이동원, 이근후(1973), 이정순(1982), 김경숙(1982), 조혜정(1983), 김진숙(1983), 안동선, 이정우(1983, 1984), 조은경(1984), 박민숙(1985)등의 研究가 있다.

이동원, 이근후는 도시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研究로 그들의 대화형태, 대화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滿足도와의 관계도 알아 보았다. 이정순은 연령, 학력, 수입, 결혼만족도, 대화형태, 대화시간에 따른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의 一致도와 理解도를 조사하였다. 김경숙은 家族間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問題들로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분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형태, 커뮤니케이션시의 문제점등을 하위변인으로 정하여 연구하였다. 김진숙은 청년 기자녀와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의 研究에서 주로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時間등을 研究하였다. 조혜정은 效率性에 따라 구분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夫婦集團과 비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夫婦集團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行動에 差異가 있는지, 家庭生活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은경은 機能的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理論의 고찰을 하였다. 박민숙은 夫婦間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살펴보고 그 要因들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調査하였다. 안동선, 이정우는 제1차 研究에서 夫婦의 커뮤니케이션 相互作用에 대한 評價를 종속 변수로 하였으며, 결혼지속연수, 주부의 연령, 학력, 자녀수, 결혼전 생활, 만족도와 친부모와의 관계, 생활수준, 결혼경로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하였다. 또 커뮤니케이션 相互作用에 대한 評價를 대화에 대한 오해에 관한 영역, 애정생활, 결혼생활, 의견조정, 사회생활, 갈등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제2차 研究에서 주부들이 인정한 夫婦 相互作用 즉 커뮤니케이션 양상, 一致度, 빈도가 어떠한 지를 살펴 보았다.



이와같이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한 研究는 주로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전 研究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재로, 家族治療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 있다. 이에 속하는 研究들로는 박춘우(1978), 정애랑(1980), 송성자(1985), 김정현(1985) 등의 研究가 있다.

박춘우는 역기능적 家族 커뮤니케이션에 행동수정론을 적용한 理論적 고찰을 하였으며, 정애랑은 夫婦關係의 問題에 대해 가족치료 이론을 접근시켜 研究하였으며, 송성자는 韓國 家族問題에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 類型을 밝혔으며, 김정현은 커뮤니케이션 가족치료이론을 부부치료의 사례에 適用하여 研究하였다.

이상의 研究들에서 살펴 보았듯이 家族 研究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研究는 불과 2~3년 전부터 그 研究가 촉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研究의 方向이나 실제등이 평면적이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련변인들도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研究가 人間 行動에 관한 研究인 만큼 좀더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背景變因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

### ① 性別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Feldman(1965)은 여자와 남자간에는 대화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면서 부인들은 부인 자신의 일, 子女問題, 父母, 個人的인 감정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은 남자의 일, 돈관리, 父母問題에 대해서 主導權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Klemer(1970)에 의하면 남자들이 좀더 실제적이며 사실적 대화를 하며 여자들은 감정적 대화를 주로 한다고 하였다.

Hall은 表現力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은 非言語的인 메시지의 수용과 송신에서 더 우세하다고 하였다(Notarius & Johnson 1982 재인용).

Haukins등(1980)은 그의 연구에서 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남편은 閉鎖的이고 表現이 적고 부인은 開放的이며 表現力이 크다고 하였다.

### ② 學歷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Haukins 등(1977)은 그의 研究논문에서 表現的이며 開放的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집단은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이며 閉鎖的인 集團은 직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였다.

Blood와 Wolf(1960)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 수록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발되며 自己表現의 기회를 더 가지기 때문에 結婚生活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용이하다고 하였다.

Deacon-Firebaugh(1975)도 그의 研究에서 학력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要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Michel(1970)은 파리에 居住하고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研究한 보고서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夫婦間에 더욱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민숙(1985), 정용재(1985), 송말희(1986)도 커뮤니케이션이 학력에 따라 유의적 差異를 보인다고 검증하였다.

오명숙(1979)은 그의 研究에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夫婦間의 意見一致度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정순(1982), 오혜정(1983)은 학력변인은 커뮤니케이션에 유의적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③ 年齡, 結婚持續期間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김경숙(1982), 황덕순(1981), 이기춘(1975)은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 認識度는 감소하며 夫婦의 연령이 적을 수록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며 원활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근후, 이동원(1973)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연령이 높은 층에서 대화의 빈도가 증가하는 主題가 있고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는 主題가 있다고 한다.

박경자(1981)의 연구에서는 夫婦相互間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연령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오혜정(1983), 이정순(1982)도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에 연령은 유의적 差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McClelland(1976)은 夫婦가 중년에 이르면 相互間에 동료의식을 느끼며 더욱 의지를 하지만 夫婦關係는 이전보다 소원해져서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가끔 있을 정도라고 하였다.

#### ④ 經濟的 要因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이정우, 안동선(1984)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높을 수록 夫婦들은 家庭生活의 여러 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滿足해 한다고 하였다.

황덕순(1981)의 조사연구에서는 안정된 소득계층의 集團이 비교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고 하였다.

Hawkins, Weissberg, Ray(1977)의 研究보고에 따르면 사회계층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方法, 內容에 유의적 差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재산, 전영수(1983)는 家庭의 收入이 많아짐에 따라 夫婦間의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 ⑤ 家族形態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김경숙(1982)에 의하면 家族形態別로 커뮤니케이션의 진행방법이나 家族員 의사의 반영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夫婦家族보다 오히려 직계가족이 자연스러운 의견교환의 경향을 보이며 主婦家族일 때에는 부인 의사의 반영이 매우 많으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조부모의 의사반영률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Miller(1961)는 3세대 家族의 관리 類型을 分析한 연구에서 1.2대보다 3대家族이 가족문제 해결시 子女들의 의견을 더 참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박경자(1981)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에서 夫婦相互間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家族形態에 따라 유의적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 3) 夫婦間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대한 研究

한 家庭을 이루고 있는 夫婦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單位(unit)로서 그 機能을 수행한다. 夫婦關係는 家族關係의 주축이 되며 夫婦는 家族의 “설계자”이다(김수지, 김정인 1984). 이러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要因이 夫婦가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임을 서론 부분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 살펴 보았지만 여기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Boyd와 Roach(1977)는 연구보고에서 夫婦間의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은 結婚生活의 質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結婚生活 내면의 신뢰를 확대시킨다고 하였다.

Navran에 의하면 結婚適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서로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서 幸福한 夫婦와 不幸한 夫婦사이의 7가지 差異點을 지적하였다. 행복한 夫婦일수록 서로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理解한다는 것을 더 많이 표현하며 더 넓은 범위의 화제를 가지고 쌍방적 대화를 유지하며 開放的이라고 하였으며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며 그들만의 특별한 言語를 선택 使用하며 보충적인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 기교를 많이 使用한다고 하였다(carbow et. al 1971 재인용).

Bowman(1965)은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연적으로 불충분하며 이러한 필연적인 불충분성을 理解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불완전성을 理解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결혼적응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Miller, Corrales, Wackman(1975)은 그의 연구보고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균등하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록 또한 서로간에 尊重할 수록 夫婦關係는 더욱 成長하게 된다고 하였다.

Klemcr(1970)는 夫婦間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이유로서 交流할 수 있는 能力, 욕구의 缺與, 안정성 및 選擇의 결여, 부인과 남편의 역할 차이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욕구의 차이점 등을 들고 있다.

Jo Ann Larsen(1982)에 의하면 夫婦 相互作用과 커뮤니케이션이 言語形態 및 제스츰어와 연결되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 하는 주제나 問題 內容이 변화할 뿐 일정하게 類型化된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계속남아 있다고 하였다.

Edwin Thomas(1979)는 夫婦의 相互作用 行動은 言語의 선택, 夫婦 각자가 말을 주도하는 비율, 침묵하고 있는 시간등에 있어서 중요한 安定性과 규칙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Williamson(1967)은 夫婦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要因 중 夫婦間에 서로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Bienvenu(1970)는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중 좋은 커뮤니케이션과 나쁜 커뮤니케이션을 구별하였는데 나쁜 커뮤니케이션은 잔소리, 대화시 부레함, 말하기 싫어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였다.

Hick & Platt(1970), Duvall, Evelyn Mills(1977)는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를 보고하면서 夫婦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이나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orrales(1974)도 부부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많이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사용하는 부부가 만족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Komorovsky는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란 행복한 결혼생활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요소인 반면에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란 거의 불가능 한 것이며, 성공적인 부부교류를 위해서는 많은 장애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상호간에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결혼기간이 길어 질수록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단순화 되어 가는 것이다. 얼굴표정과 몸짓이 점차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며, 부부간에는 Marital telepathy가 형성된다고 하였다(이근후, 이동원 1973 재인용).

이상에서 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理論의 특성을 살펴 보았듯이 夫婦가 이루는 커뮤니케이션은 그 고유한 특성과 양상을 지니고 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夫婦는 이러한 상황들을 理解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며 능동적인 態度를 가지고 夫婦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1. 측정도구

本 研究에서는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質問紙를 使用하였으며 質問紙의 구성은 실제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하여 本 研究者가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쓰여진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구성하기까지 3차례의 事前 실제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調査에서는 本 研究者가 작성한 총6가지

표 2. 실제조사 내용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1. 調 查 時 期	1986. 6. 23-6.28	1986. 7. 21-7. 26	1986. 10. 27-11. 1
2. 調 查 對 象	성인단체회원중 결혼한 남녀	K 국민학교 어머니회 회원	S.H 중·고등학교 학부모
3. 調 查 方 法	면접식 질문지법	질문지법	질문지법
4. 調 查 人 員	30명	30명	100명
5. 質 問 紙 樣 式	자유응답식	자유응답식	자유응답식

質問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1차 調査에서는 面接式 질문지법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의 자료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집의 비약함과 그외의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제2차, 제3차 調査를 하였다.

3차례의 실제조사에서 얻어진 총 160부의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총 107가지로 산출해 낼 수 있었다. 반복되는 문항은 빈도수로 나타내었으며 이중 매우 유사한 内容의 問項들을 재검토하여 75문항으로 축소시켰다. 75問項중 빈도수가 6이상을 나타내는 問項을 추출하여 총 55問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문항의 應答方式은 5점 Likert 尺度로서 “아주 그렇다”에는 5점, “그런 편이다”에 4점, “보통이다”이면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을 주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尺度를 전문가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最適의 問題點을 補充하였다. 중점적으로 살펴 본 것은 尺度의 각각의 問項들에서 의미있는 바를 응답자가 정확하게 理解할 수 있는 지를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質問內容의 애매모호함이나 質問의 서술이 어렵게 된 問項들을 다시 재정리하였다.

## 2. 研究對象의 選定

本 研究의 研究對象은 研究의 목적상 結婚한 男·女로 제한하였으며 전 家族週期 단계에 걸쳐 골고루 調査對象이 표집될 수 있도록 有意標集(purposive sampling)을 하였으며 서울 시내의 제기동 S여고, 동선동 S여고, 봉천동 S여중, 월계동 G남중, 상도동 S여중, 필동 D여중, 우이동 D국고, 대현동 Y유치원, 개봉동 G아파트에서 표집하였다.

## 3. 測定方法 및 資料處理

### 1) 測定方法

研究를 위한 자료수집은 1987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研究者와 보조자 4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本 研究는 각 家庭을 대표하는 부인 300명과 남편 300명을 예정대상으로 하여 質問紙를 각각 300부씩 총 600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대상학교에서 무작위로 학급의 학생들에게 배부되어 학부모가 응답하는 방법과 아파트 관리인이 배부하여 주민이 응답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총 600부중 부인 270부, 남편 245부가 회수 되었으나 그중 부실하게 응답한 質問紙를 제외하고 부인 264부, 남편 240부 총 504부만 자료로 채택하였다.

### 2) 資料處理

자료처리는 다음과 같은 分析方法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研究對象의 一般의 性格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빈도분포(frequency distribution)와 백분율(frequency percentage)을 사용하였다.

둘째, 測定道具의 問項分析(item analysis)을 하기 위해서 각 문항(item)들의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상대도수분포(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를 사용하였다.

셋째, 尺度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개의 변인들이 어떤 要因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要因分析方法(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는데 주성분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방법(Orthogonal technique)으로 要因을 추출하였다.

네째, 尺度에서 추출된 男, 女 각각의 要因들의 信賴度(reliability)를 알아보기 위해 한 要因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동질성 여부를 측정하는 內의 一致度(internal consistency)방법으로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背景變因에 따른 커뮤니케이션方法的 差理를 검증하기 위해 一元變量分析(one way ANOVA)을 사용한 후, DUNCAN의 New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follow-up tests)을 하였다.

本 研究자료의 통계처리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산실의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rogram을 사용하였다.

#### IV. 結果 및 解釋

##### 1. 研究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標集된 남편 240가정, 부인 264가정, 총 504가정의 一般的 特性은 다음과 같다.

年齡別로 보면 남편의 연령은 40~49세가 55.4%로 가장 많으며 또한 부인도 40~49세가 42.6%로 가장 많다. 研究對象의 연령층이 대체로 30~50대에 集中되어 있어 研究對象이 비교적 中年층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學歷別로는 남편의 경우 고졸과 대졸이 각각 39.6%, 37.1%로 고졸과 대졸에 集中된 現象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로서는 집작할 만한 추세인 듯 하다. 부인의 경우는 중졸과 고졸이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에 集中현상을 보이고 있는 남편의 학력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職業分布面에서는 남편은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이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인도 이와 비슷하여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직이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인의 경우는 약 45%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研究對象者 중 취업주부가 많게 나타났다.

研究對象者의 月平均收入은 취업을 한쪽에 한하며 남편은 50만원이하가 57.3%, 50만원이상인 42.7%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研究對象者의 經濟力은 '中' 정도의 水準임을 알 수 있다. 부인은 50만원이하가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25~50만원이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家庭의 한달 총수입을 보면 남편집단의 가정은 50만원이하가 45.9%, 50만원~100만원이 46.7%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인집단의 가정은 25만원~50만원이 46.9%로 가장 많고 50만원~100만원이 38.9%로 그 다음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달 總收入面에서는 남편집단가정과 부인집단가정이 비교적 비슷한 經濟力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형태면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연애보다는 중매의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편집단에서는 연애가 42.1%, 중매가 57.1%로 그다지 크지 않은 差異를 보이고 있지만 부인집단에서는 연애가 39.2%, 중매가 60.1%로 부인집단에서는 다소 중매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家族形態에서는 남편과 부인집단 모두 核家族이 擴大家族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高度로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現時點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現象인 듯하다.

家族生活週期面에서는 家族生活週期가 골고루 표집될 것을 豫想했으나 연령군이 30~50대에 集中되어 있는 現象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자녀학동기, 자녀청년기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의 연령차에서는 남편과 부인집단 모두 1~3년사이가 각각 40.8%, 41.8%로 우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4~6년사이로 남편집단이 30.4%, 부인집단이 30.8%를 보이고 있다.

##### 2. 問項分析(Item analysis)

本 研究에서는 커뮤니케이션 尺度에 대한 분항 분석(Item analysis)을 하여 變別度(discriminant power)를 검증하였다(황정규, 1975).

즉 각 問項의 平均(mean), 標準偏差(standard deviation), 相對度數分布(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를 산출하여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問項을 제외시켰다.

本 研究는 5점 尺度로써 平均이 2점이거나 4점이상을 보이는 問項을 제외시켰다. 남편집단은 4번, 35번, 49번의 분항이 제외되어 52問項이 채택되었다. 또한 부인집단은 4번, 26번, 36번, 51번의 問項이 제외되어 51問項이 채택되었다.

##### 3. 要因分析(Factor analysis)

問項分析을 통해 채택된 남편집단의 52問項, 부

표 3. 남편집단의 요인부하량  $\pm 0.40$  이상인 문항

분항번호	내 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
36	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만을 장황하게 이야기	-0.62	0.06	-0.13	-0.05	-0.15	-0.10
32	내 자신이 피곤할 때 이야기나 질문을 덧붙여 적	0.58	0.17	-0.03	0.12	0.05	0.08
11	잔소리 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0.56	0.28	0.02	-0.22	0.08	-0.11
9	"~하시오"라는 식의 명령조 이야기	0.54	0.06	0.09	-0.02	-0.01	-0.08
55	자기의 고집을 강하게 내세워 이야기	0.53	0.09	0.05	-0.01	0.34	-0.20
34	내 기분대로 답히 이야기	0.52	0.08	-0.15	-0.04	0.38	0.05
43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유도	0.51	-0.03	0.28	0.23	0.10	-0.01
19	융통성 없게 이야기	0.50	-0.06	-0.01	0.20	0.06	0.17
18	똑같은 이야기를 며칠간 계속 반복	0.49	0.14	-0.02	-0.11	-0.08	0.09
15	잘못을 알면서 시인하지 않고 마구 우겨댄다.	0.48	-0.05	0.12	0.12	0.32	-0.04
13	의견차이시 말을 딱 끊어버린다.	0.45	0.07	-0.01	0.31	-0.22	0.04
38	대체로 충고하는 이야기	0.42	-0.12	0.33	-0.33	-0.09	0.12
40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	0.18	0.60	0.18	0.05	0.20	0.03
25	갖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많이 이해	0.07	0.51	0.19	0.39	0.01	0.03
44	부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들어준다.	0.08	0.50	0.17	0.07	0.20	-0.14
7	부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	0.11	0.48	0.31	0.03	0.15	0.07
33	항상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	0.10	0.46	0.07	0.07	0.13	0.01
45	부인의 말에 불만을 품은 적이 거의 없다.	-0.01	-0.50	-0.04	-0.05	-0.03	0.03
10	대체로 재미있게 이야기	-0.12	-0.55	-0.15	-0.20	0.08	-0.05
16	부인의 말을 거의 들어준다.	0.03	-0.19	-0.74	-0.01	-0.08	-0.12
17	진실하게 이야기	0.09	0.17	0.64	0.27	0.02	0.18
6	부인의 의견을 존중	0.14	0.28	0.63	0.05	0.21	0.01
1	거의 모든것에 대해 상의	0.10	0.10	0.53	0.37	-0.10	0.01
23	부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	0.17	0.22	0.53	0.27	0.18	0.12
3	부인의 의견에 거의 무조건 동의	0.11	-0.13	-0.42	0.22	-0.08	0.37
8	자신의 입장을 솔직, 정확하게 표현	0.13	0.02	0.20	0.58	-0.04	0.08
27	잘못된 점에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 제시	0.02	0.11	-0.02	0.58	0.19	-0.15
24	어떤일에 대해 정확히 알려고 많은 질문	-0.01	0.10	0.18	0.49	0.07	0.11
41	어떤 이야기든지 대충 넘기려하지 않는다.	0.42	0.02	0.08	0.44	0.25	0.07
47	자유스럽게 이야기한다.	0.03	0.36	0.16	0.43	-0.16	0.11
31	풍부한 화제로 이것저것 이야기	0.22	-0.31	0.06	-0.41	-0.10	-0.13
52	부인에게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0.32	0.31	0.23	0.40	-0.16	0.34
30	부인에게 존칭어 사용	0.04	0.17	0.03	-0.08	0.60	-0.02
42	부인에게 겸손하게 이야기	0.17	0.38	0.06	-0.10	0.53	-0.04
50	말하기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함	-0.01	-0.02	0.01	0.16	0.52	-0.01

22	화가 풀린 다음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	0.13	0.43	0.12	0.23	0.45	0.06
29	부인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0.15	0.30	0.33	0.23	0.43	0.04
12	자주 큰소리치면서 마구 이야기하지 않는다.	0.40	0.27	-0.05	-0.13	0.41	0.04
37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한다.	0.05	-0.05	0.07	0.03	-0.15	0.66
39	부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0.06	-0.02	0.23	-0.01	0.13	0.55
28	좋지 않을 일이 생겼을때 항상 내 탓이라고 한다.	0.06	-0.28	-0.14	0.26	-0.02	0.50
54	부인에게 농담을 많이 한다.	0.20	-0.36	-0.11	-0.26	0.15	-0.43
14	부인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0.08	0.14	0.20	-0.09	0.27	0.42
20	선입관을 갖지 않는다.	0.01	0.06	0.02	-0.03	0.06	0.40

표 4. 부인집단의 요인부하량  $\pm 0.40$ 이상인 문항

문항번호	내 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
11	잔소리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0.60	0.22	-0.10	0.10	-0.14	-0.18
32	내 자신이 피곤할때 이야기나 질문을 못들은 척	0.58	0.12	0.02	0.09	0.09	0.17
9	"~하시오"라는 식의 명령조로 이야기	0.55	0.01	0.07	0.02	-0.08	0.04
18	똑같은 이야기를 며칠간 계속 반복	0.50	0.16	-0.05	-0.02	0.12	-0.10
55	자기의 고집을 강하게 내세워 이야기	0.50	0.02	-0.01	0.38	-0.16	0.06
43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유도	0.49	-0.04	0.29	0.09	-0.05	0.30
34	내 기분대로 급히 이야기	0.49	0.02	-0.12	0.39	0.03	0.02
19	융통성 없게 이야기	0.48	-0.10	0.05	0.10	0.25	0.25
38	대체로 충고하는 이야기	0.45	-0.19	0.35	-0.07	0.08	-0.28
13	의견차이시 말을 툭 끊어 버린다.	0.45	0.07	-0.01	-0.06	0.05	0.33
35	남편의 비밀을 들추려 한다.	0.44	-0.01	0.29	0.08	0.21	-0.06
15	잘못을 알면서 시인하지 않고 우겨댄다.	0.43	-0.10	0.14	0.30	-0.03	0.22
21	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정당화	0.43	0.08	0.01	0.07	-0.18	-0.08
25	짚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많이 이해	0.06	0.57	0.18	0.07	0.07	0.29
10	대체로 재미있게 이야기	-0.17	-0.55	-0.18	0.05	0.01	-0.13
40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	0.23	0.54	0.22	0.23	-0.09	0.01
44	남편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들어준다.	0.08	-0.50	0.11	0.25	-0.18	0.02
45	남편의 말에 불만을 품은 적이 거의 없다.	-0.04	0.50	-0.03	-0.11	0.01	0.02
7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	0.13	0.47	0.29	0.25	-0.05	-0.03
33	항상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	0.13	0.47	0.09	0.08	-0.11	0.04
54	남편에게 농담을 많이 한다.	0.22	-0.44	-0.22	0.16	-0.30	-0.15
47	자유스럽게 이야기한다.	0.02	0.43	0.17	-0.12	0.08	0.37
16	남편의 말을 거의 믿어준다.	0.02	-0.20	-0.73	-0.08	0.05	0.01
17	진실하게 이야기	0.07	0.22	0.66	0.03	0.99	0.22
6	남편의 의견을 존중	0.14	0.25	0.61	0.24	-0.09	0.05

23	남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	0.11	0.26	0.53	0.19	0.03	0.23
1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상의	0.07	0.18	0.51	-0.12	-0.05	0.36
53	열심히 진지하게 이야기	-0.05	0.33	0.49	-0.02	0.22	0.27
30	남편에게 존칭어 사용	0.05	0.08	0.04	0.60	-0.11	-0.05
42	남편에게 겸손하게 이야기	0.21	0.26	0.10	0.55	-0.13	-0.09
22	화가 풀린 다음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	0.08	0.11	0.13	0.53	0.11	0.22
50	말하기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	-0.05	-0.08	0.05	0.51	-0.05	0.21
12	자주 큰소리치면서 마구 이야기하지 않는다.	0.38	0.20	-0.07	0.50	0.05	-0.10
29	남편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0.12	0.30	0.34	0.41	-0.07	0.22
49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	0.01	-0.03	-0.17	-0.12	0.66	0.13
37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한다.	0.01	-0.01	0.20	-0.12	0.62	0.01
3	남편의 의견에 거의 무조건 동의	0.06	-0.06	-0.34	-0.04	0.53	0.20
28	좋지않은일이 생겼을 때 항상 내탓이라고 이야기	0.01	-0.25	0.01	-0.05	0.49	0.27
39	남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0.06	-0.03	0.38	0.14	0.46	-0.05
48	화내는 것이 싫어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	0.36	0.21	-0.03	-0.27	0.43	0.18
2	신경질이 나도 꼭꼭 잘 참고 이야기	-0.10	-0.01	-0.20	-0.33	0.42	0.02
20	선입관을 갖지 않는다.	-0.01	0.10	0.09	0.09	0.41	-0.10
8	자신의 입장을 솔직 정확하게 표현	0.09	0.11	0.25	-0.10	0.03	0.58
27	잘못된 점에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 제시	-0.03	0.19	-0.07	0.21	-0.22	0.55
41	어떤 이야기든지 대충 넘기려 하지 않는다.	0.34	0.06	0.12	0.24	0.05	0.48
24	어떤 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많은 질문을 한다.	-0.06	0.18	0.19	0.10	0.18	0.43

인집단의 51問項을 각각 몇개의 相互獨立인 새로운 要因으로 推出하기 위해 主成分分析(principal-component)을 하였다.

문항간의 相互相關係數를 기초로 主成分分析方法(principal-component analysis)을 適用하면 남편 집단 52변인, 부인집단 51변인이 最大 分散을 1.00으로 하여 투입된 변인만큼의 要因이 추출된다. 각 변인의 變量이 1.00이므로 총변량(total variance)은 남편집단 52.00, 부인집단 51.00이 된다.

각각의 집단에서 추출된 要因들은 Kaiser의 기준에 따라 고유치 1.00이상인 요인만 뽑았다(Rummel 1970). 이에 따라 남편집단 6개, 부인집단 15개 要因이 추출되었다. 이중 비교적 높은 고유치를 지닌 6개 要因으로 각각을 제한시켜 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은 남편집단은 21.02, 부인집단은 20.72이었다. 이는 전체변량의

각각 40.42%, 40.64%에 해당되다.

主成分分析方法에서 추출된 각 集團의 6개 要因은 많은 변인들이 각 要因에 최대한으로 적재(loading)되도록 하되 한 요인에 적재된 변인은 다른 要因에는 가능한한 낮게 적재되도록 하기 위해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켰다.

표 3, 4는 남편집단의 要因과 부인집단의 각 要因에서 요인부하량이  $\pm 0.40$ 이상의 問項만을 추출한 것이다(Kimmel & Van Der Veen 1974). 그 結果 남편집단의 要因1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62~0.42로 12문항이, 要因2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60~0.55로 7문항이, 要因3에서는 要因부하량이 0.74~0.42로 6문항이, 要因4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58~0.40으로 7문항이, 要因5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60~0.41로 6문항이, 要因6에서는 要因負荷量이 0.66~0.40으로 6문항이 채택되었다.



부인집단의 要件1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60~0.43으로 13문항이, 要件2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57~0.43으로 9문항이, 要件3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73~0.49로 6문항이, 要件4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60~0.41로 6문항이, 要件5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66~0.41로 8문항이, 要件6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58~0.43으로 4문항이 채택되었다.

#### 4. 信賴度 分析(reliability analysis)

남편집단과 부인집단에서 추출된 각각의 6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동질성 여부를 측정해 주는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의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남편집단에서는 1요인과 5요인을 제외하고 2요인이 0.151, 3요인이 0.210, 4요인이 0.359, 6요인이 0.041로  $\alpha$  계수(신뢰도계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부인집단에서는 2요인이 0.017, 3요인이 0.438로 낮은 신뢰도 계수를 보이고 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요인에서 신뢰도를 낮춘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남편집단의 1요인에서 36번 문항이, 2요인에서 45번, 10번 문항이, 3요인에서 3번, 16번 문항이, 4요인에서 31번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부인집단의 3요인에서는 16번 문항이 제외되었다.

또한 남편집단의 6요인과 부인집단의 2요인은  $\alpha$  계수가 극히 낮아 요인자체를 제외하였다. 각각의

표 5. 異質的 問項이 제외되기 전의  $\alpha$  계수

성 별 要 因	남 편 부 인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	
1요인	0.6014	0.7832
2요인	0.1516	*-0.0177
3요인	0.2103	0.4387
4요인	0.3591	0.6718
5요인	0.6930	0.6554
6요인	*0.0410	0.6279

\*제외된 요인

표 6. 異質的 問項이 제외된 후의  $\alpha$  계수

성 별 要 因	남 편 부 인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	
1요인	0.7309	0.7832
2요인	0.7370	제외된요인 (-0.0177)
3요인	0.7296	0.7511
4요인	0.6078	0.6718
5요인	0.6930	0.6554
6요인	제외된요인 (0.0410)	0.6279

요인에서 이질성을 띠는 문항을 제외시킨 후 다시 신뢰도 검증은 한 결과 신뢰도계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남편과 부인의 각각의 집단에서는 5개씩의 요인이 최종적으로 산출되었다.

#### 5. 要件 命名

남편과 부인 각각의 집단에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要件에 대한 命名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표 7을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예정이나 평등보다도 권위와 계층간 서열, 노소의 차, 주종의 엄격한 격차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行動樣式임을 알 수 있다(윤태림 1982). 이는 韓國의 傳統的 가치체계의 中心的 性格으로 지적되는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價値指向(윤태림 1979)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父母는 언제나 자식에 대하여 신분상의 우위에 있으며 지배적인 權威와 명령이 따르게 되며 자식은 이에 절대복종하는 것이 이상적인 행동양식으로 보이는 家族主義에서 비롯된 權威主義的 行動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 송성자(1985)는 그의 연구논문에서 권위지향적 커뮤니케이션類에는 자기주장만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명령적이고 지시적이거나, 상대방의 변명이나 설명을 듣지 않으려 하거나, 주변사람을 지배하려하거나 화를 잘 내고 큰 소리로 말하며 잘 싸우려하는 行動樣式

표 7. 권위형 커뮤니케이션

분 항	남 편 집 단	분 항	부 인 집 단
32	내 자신이 피곤할 땐 부인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 한다.	11	잔소리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11	잔소리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32	내 자신이 피곤할 땐 남편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 한다.
9	“~하십시오”라는 식의 명령조로 이야기한다.	9	“~하십시오”라는 식의 명령조로 이야기한다.
55	자기의 고집을 강하게 내세워 이야기한다.	18	똑같은 이야기를 며칠간 계속 반복한다.
34	항상 내 기분대로 급히 이야기해 버린다.	55	자기의 고집을 강하게 내세워 이야기한다.
43	무엇이든지 “안된다”, “할수 없다” 등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유도한다.	43	무엇이든지 “안된다”, “할 수 없다” 등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유도한다.
19	융통성없게 이야기한다.	34	항상 내 기분대로 급히 이야기해 버린다.
18	똑같은 이야기를 며칠간 계속 반복한다.	19	융통성없게 이야기한다.
15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시인하지 않고 마구 우겨댄다.	38	남편에게 대체로 충고하는 이야기를 한다.
13	부인과 이야기도중 의견차이가 생겼을땐 그냥 말을 딱 끊어버린다.	13	남편과 이야기도중 의견차이가 생겼을 땐 그냥 말을 딱 끊어버린다.
38	부인에게 대체로 충고하는 이야기를 한다.	35	이야기도중 남편의 비밀을 들추려 한다.
		15	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시인하지 않고 마구 우겨댄다.
		21	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정당화한다.

등이 있다고 하였다.

남편과 부인집단에 나타난 要因은 전반적 문항 내용들은 권위주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관례적, 냉소적, 파괴적, 공격적, 세력중심적 행위를(송성자 1985 재인용) 나타내기에 이 요인을 “權威型”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Erich fromm(이극찬역 1975)에 의하면 권위주의는 합리적 권위와 비합리적 권위로 나타난다고 하며 合理的 權威는 권위에 따르는 者를 돕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며, 존경이 따르며 이들의 관계는 점점 좁아지게 됨으로써 결국 권위적 관계가 소멸된다고 하였다. 또한 비합리적 권위는 사람을 지배하는 힘에서 나타난다고 하며 이들의 관계는 불평등관계이며 적개심과 원망과 불안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재석(1983)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령, 세대성 관직에서 연유되는 권위는 비합리적 권위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해 추출된 권위유형은 合理的 權威보다는 非合理的 권위의식에서 나타나는 行動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김대석(1984)은 그의 研究에서 권위주의는 本質的으로 자신의 열등감, 무력감, 고독감등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보다 우월한 者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예속되는 경우와 자기보다 부족한 者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경우이며 이는 모두가 상대방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서

표 8. 친숙형 커뮤니케이션

문항	남 편 집 단
40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한다.
25	짚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많이 이해한다.
44	대부분 부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들어 준다.
7	부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한다.
33	항상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곧 人間의 主體性과 존엄성을 잃어 버리는 결과가 됨으로써 人間主義的인 面에서 비인간화 要因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問題的 측면에 있는 권위주의가 아직도 韓國社會와 家庭生活에 매우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비합리적인 권위주의가 우리의 주변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위형의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夫婦單位에서 이루어지는 類型이라면 家庭의 幸福을 위해 필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우선 人間主義的인 意識構造를 가지면서 方法上에서도 점차적으로 民主的인 類型으로 발전되어야 하겠다.

남편집단의 한 要因을 구성하고 있는 위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상대방과의 相互作用時 우호적이며 사교적인 行動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uckins(1977, 1980)은 그의 研究에서 言語를 개방적으로 하고 感情表出을 높게하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친숙형(conventional style)이라고 명명하였는데 開放的이란 自身이나 他人의 內的, 外的인 경험이나 사실을 인정하여 자신의 觀點을 言語로 表現하고 전달하려 하는 성향이며 또한 높은 감정 표출이란 어떠한 事實에 대해 情緒的으로 강하게 몰입해 있고 자신의 感情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상의 理論的 근거에 의해 본 要因을 Huckins의 명명에 입각하여 “親熟

型”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친숙형”은 특별히 남편집단에서만 추출된 유형이다. 부인집단에서는 신뢰도계수가 너무 낮아 제외된 要因이다. 要因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내용들이 언뜻 여성취향의 內容이라고 생각되지만 本 研究者는 問項內容이 갖고 있는 심층적 측면에서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은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의 行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표 9을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內容들은 대체로 相對方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指向하고 있는 행동양식으로서 상대방에게 진실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등의 誠實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송성자(1985)는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유형을 분류하면서 不誠實指向的인 커뮤니케이션은 대체로 솔직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생각없이 되는 대로 말하거나,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行動을 하면서 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要因은 송성자의 불성실지향적 커뮤니케이션과는 그 반대의 행동양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理論的 근거에 의해 본 要因은 송성자의 不誠實概念과는 반대 개념인 성실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즉 본 커뮤니케이션 類型을 “성실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성실형”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남편, 부인 모두가 指向하여야 하며 추진시켜야 할 바람직한 類型이라고 생각한다.

남편, 부인 모두가 誠實한 方法으로 가정생활의

표 9. 성실형 커뮤니케이션

문 항	남 편 집 단	문 항	부 인 집 단
17	진실하게 이야기한다.	17	진실하게 이야기한다.
6	부인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6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1	감추는 것이 없이 모든 것에 대해 상의한다.	23	남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
23	부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	1	감추는 것 없이 모든 것에 대해 상의한다.
		53	대부분 이야기 내용을 남편에게 열심히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표 10. 분석형 커뮤니케이션

문항	남편 집단	문항	부인 집단
8	내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솔직 정확하게 표현한다.	8	내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솔직 정확하게 표현한다.
27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 제시	27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면서 구체적 방향이나 방법 제시
24	어떤 일을 부인과 이야기할 때 그 일에 대해 정확히 알려고 질문한다.	41	어떤 이야기든지 대충 넘기려 하지 않는다.
41	어떤 이야기든지 대충 넘기려 하지 않는다.	24	어떤 일을 남편과 이야기할 때 그 일에 대해 정확히 알려고 질문한다.
47	일단 부인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자유스럽게 이야기한다.		
52	대체로 부인에게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표 11. 타인지향형 커뮤니케이션

문항	남편 집단	문항	부인 집단
30	부인에게 존칭어를 사용한다.	30	남편에게 존칭어를 사용한다.
42	부인에게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42	남편에게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50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	50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
22	화가 풀린 다음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한다.	22	화가 풀린 다음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한다.
29	부인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2	자주 큰소리를 치면서 아무렇게나 마구 이야기하지 않는다.
12	자주 큰소리를 치면서 아무렇게나 마구 이야기하지 않는다.	29	남편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가지에 대해 의논하고자 할 때 그 家庭에는 더욱 生産的이고 올바른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표 10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전적으로 전략적이며 체계적이며 合理的인 행동측면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rginia Satir(1972)는 그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중 理性主義者(computer)유형을 언급하면서 合理的인 말만 하고 그의 태도는 조용하고 차며 항상 올바르고 쉽게 感情을 내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Huckins(1977, 1980)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분류하면서 언어표출을 개방적으로 하며 낮은 정서표출을 하는 행동

양식을 分析型이라고 하였다.

以上の 理論的 根據에 의해 본 要因을 “分析型”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중 “분석형”이 남편과 부인집단 모두에서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가정생활의 합리적 운영에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다소 서구의 합리적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연유한 행동양식임을 예측할 수 있다. 현대 가정생활의 운영이 과거의 지난날보다 더욱 복잡성과 중대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남편과 부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분석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상호작용시 상대방을 더욱 먼저 생각하는 사려있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Harriet Martineau(1837)는 미국인의 타사지향적 성향을 지적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항상 조심하고 그것에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억제한다고 하며 자신의 행동의 타인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신경을 쓰며 특히 무슨 주장을 내세울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속성은 본 요인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성향으로써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본 요인을 "타인지향적"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타인지향적 유형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만 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他者の 생각과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가정생활을 운영해 나갈 때 부부 모두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좀더 건전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며 아울러 민주적인 가정생활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12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소 순종적, 복종적, 희생적 행동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희생형 커뮤니케이션

문항	부인 집단
49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한다.
37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한다.
3	남편의 의견에 거의 무조건 동의를 해 버린다.
28	가정생활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때 항상 내 탓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39	남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이야기한다.
48	눈치를 보며 이야기한다.
2	신경질이 나도 껍죽 참고 이야기한다.
20	남편에 대해 선입관을 갖지 않고 이야기한다.

Virginia Satir(1972)는 커뮤니케이션유형 분류중 순종적(Placater)유형은 무조건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무력함의 태도를 취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송성자(1985)는 그의 연구에서 가문을 중요시하며, 남존여비사상, 서열의식등의 전통적 가치의식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 특히 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희생자지향적 커뮤니케이션유형은 일이 잘못되면 자기책임으로 생각하거나, 자기를 숨기려 하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무조건 동의하거나,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거나 하는 행동양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한국 여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부인집단의 이 요인을 송성자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 "희생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여성의 지위는 가족을 대표하는 가부장에 완전히 예속적이었으며 여성의 생활이란 순종과 인내만이 강조되었으며 전통가족에서의 여성의 모습은 혼인전에는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이 강요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결혼이후 남편의 허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모든 행동은 남편의 허가아래 행하도록 요구되었다(이효재 외 1인 1976).

이러한 여성에 대한 가족주의는 여성의 순종, 인내, 겸손, 희생만을 강조하여 온 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생활양식과 모든 추세들이 현재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 모양과 특성을 달리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과거의 생활상에 입각한 여성에 대한 관념도 현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시 재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추세에 여성에 대한 기대는 결코 평등하게 보조를 맞추어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다. 변화해야만 하는 주체가 변화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그 주변에서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지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21세기를 향한 한국사회 풍토에서는 아직도 비합리적이며 비생산적 과거의 풍토, 관습, 관념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이 아직도 가정생활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숨기고, 희생하며 극도로 절제해야 함은 여성자신의 책임과 아울러 그러한 풍토를 낳게한 전통사회의 병폐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부부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속에서 발견된 결과들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과 태도를 유발시킨 그들의 의식구조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가정의 행복을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부부라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들이 어떠한 면을 개선하고 어떠한 면을 더욱 강조, 촉진시켜야 할 지를 유념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의해 남편집단, 부인집단에서 추출된 요인을 정리해보면 남편집단에서는 "권위형", "친숙형", "성실형", "분석형", "타인지향형"이 나왔으며 부인집단에서는 "권위형", "성실형", "타인지향형", "희생형", "분석형"이 나왔다.

남편집단에서는 부인집단에서 볼 수 없는 "친숙형"이 나왔으며 부인집단에서는 남편집단에서 볼 수 없는 "희생형"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가지고 배경변인(나이, 학력, 직업, 개인수입, 배우자와의 연령차, 결혼형태, 가족형태, 가정의 총수입,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 보았다. 남편집단의 커뮤니케이션유형을 배경변인에 따라 아무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집단의 커뮤니케이션유형은 배경변인중 연령에서는 희생형과 분석형이, 학력에서는 성실형과 희생형과 분석형이, 개인수입에서는 성실형과 희생형이, 가정의 총수입에서는 권위형, 성실형, 타인지향성, 희생형, 분석형이, 생활주기에서는 권위형과 희생형이, 결혼형태에서는 성실형과 희생형과 분석형이, 가족형태에서는 희생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는 家庭의 夫婦들을 대상으로 夫婦들의 커뮤니케이션 類型을 남편과 부인에 따라 각각 그 유형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本 研究目的을 두고 있다.

研究問題는 다음과 같다.

- 1) 韓國 남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類型으로 分類되어 지는가?
- 2) 韓國 주부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類型으로 分類되어 지는가?

研究에서 사용한 道具는 本 研究者가 3차례의 실제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作成한 것이다.

研究對象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結婚한 男, 女로서 각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학부모 및 아파트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표본수는 부인264명, 남편 240명 총 504명 이었다.

調査期間은 1987년 3月 23日부터 4月 4日까지였다.

調査에서 얻어진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남편집단의 커뮤니케이션 類型은 5가지 權威型, 親熟型, 誠實型, 分析型, 他人指向型으로 추출되었다.
- 2) 부인집단의 커뮤니케이션 類型도 5가지로 權威型, 誠實型, 他人指向型, 犧牲型, 分析型으로 추출되었다.

우리나라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類型의 차이점은 남편집단은 보다 分析型이고, 부인집단은 보다 犧牲型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男性과 女性의 先天的 차이에 기인하는지 또는 한국사회의 性差別 社會化에 따른 差異인지에 대한 과학적 分析은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아직도 韓國社會에서는 적어도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있어서 女性이 희생적임은 진정한 民主的 家庭形成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思料된다.

研究의 結果를 통해 끝으로 보다 나은 夫婦間 커뮤니케이션 研究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남편과 주부들의 커뮤니케이션 類型에 대한 研究로 척도구성이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였지만 보다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을 추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척도를 구성하여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夫婦關係의 質의 改善을 위해서 보다 많은 量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研究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선 커뮤니케이션 研究에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된 다양한 尺度의 開發研究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관련변인들이 좀더 심층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측면의 변인들로 구성 되어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권정임 : 부부간 대화를 통한 결혼생활의 만족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2) 김경숙 :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동대학논문집 10, 관동대학, 1982
- 3) 김대석 : 한국사회의 권위주의 의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4) 김명자 외 : 가족과 환경. 서울 : 교문사 : 161, 1986
- 5) 김수지·김정인 : 가족정신건강. 서울 : 수문사 : 93, 1984
- 6) 김은주 : 도시부인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7) 김정현 : 부부치료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8) 김현주·이선미 : 부부간의 대화정도가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9) 김진숙 :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0) 박경자 :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 행복도와 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1) 김생산·전영수 :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인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대학 연구보고 9,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출판부, 1983
- 12) 박인숙 :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3) 박혜인 외 : 가족과 환경. 서울 : 교문사, 119, 1986
- 14) 송말희 : 도시 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5) 송성자 :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송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6) 에릭프롬 : 자유에서의 도피(이극찬역, 1975). 서울 : 민중서관 23-24, 191-192
- 17) 오명숙 : 결혼 적응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18) 오택섭 : 사회과학데이터 분석법. 서울 : 나남, 1986
- 19) 유영주 :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200, 1981
- 20) 유은희 : 한국 도시 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21) 윤태림 : 한국인. 서울 :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 현암사, 39, 1982
- 22) 윤태림 : 한국인. 서울 : 현암사, 223, 1979
- 23) 이근후·이동원 : 도시가족내의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농촌, 2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80, 1973
- 24) 이기춘 : 가계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관리학회지, 13(1), 대한가정관리학회, 20, 1975
- 25) 이미숙 :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역할태도와의

-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26) 이은죽 : 도시 중류가족의 생활주기에 관한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9
- 27) 이인희 : 가정경영관리. 서울 : 수학사, 36, 1973
- 28) 이정순 :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29) 이정우 · 안동선 : 도시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I). 아시아여성연구 22, 아시아여성연구회, 1983
- 30) 이정우 · 안동선 : 도시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II). 아시아여성연구 23, 아시아여성연구회, 1984
- 31) 이효재 : 가족과 사회. 서울 : 경문사, 239, 1985
- 32) 장병림 : 사회심리학. 서울 : 박영사, 259-260, 1984에서 재인용
- 33) 정애량 : 부부관계의 분제에 관한 가족치료 이론적 접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34) 정용재 :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 의 상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35) 정충량 · 이효재 : 도시 주부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논총 1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0
- 36) 조윤경 : 기능적인 가족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한국가정관리학회, 131-150, 1984
- 37) 조혜정 : 부부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38) 차배근 : 커뮤니케이션학개론(上). 서울 : 세영사, 18, 1980
- 39) 최신타 : 도시 부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제 2부). 논총 22, 한국문화연구원, 89, 1973
- 40) 최재석 :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 개문사 76, 1983
- 41) 최정혜 : 도시 주부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42) 홍기선 :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 나남, 1986
- 43) 황덕순 : 제주도의 가계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대한가정학회, 52, 1981
- 44) 황정규 : 교육평가. 서울 : 재동문화사, 1975
- 45) Adams BN :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  
retation. 3th ed, Chicago : Rand McNally Col-  
lege Publishing Co., 301-303, 1980*
- 46) Bienvenu MSJ : *Taking it over at Home : Prob-  
lems in Family Communication. New York :  
Public affairs Committee, 3, 1967*
- 47) Bienvenu Sr. MJ : *Mearurement of Marital Co-  
mmunication. The Family Corrdinator 19 26-31,  
1970*
- 48) Bienvenu MJ SR. and McClain S : *Parent Ado-  
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62(5) May 344, 1970*
- 49) Blood PJr. RO and Wolfe DM : *Husband and  
Wives. Glenco Illinois : The Free Press 189-191,  
218-219, 1960*
- 50) Bowman HA : *Marriage for Morderns. N.Y. :  
McGraw Hill Book Company, 317, 1965*
- 51) Boyd L and Roach : *Interpersonal Communica-  
tio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 540, 1977*
- 52) Carbow RW, Reynols R, Green LW and Khan  
NI : *Underlying Sources of Agreement and Co-  
mmunica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in  
Decca, East Pakista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571-583, 1971*
- 53) Carrales R : *lThe Influence of Family Life Cycle  
Categories, Marital Power, Spousal Agreement,  
and Communication style upon marital Satisfac-  
tion the first six years of Marriage. Doctoral Dis-  
sertation, University of Minesota, 1974*
- 54) Deacon RE and Firebaugh FM : *Home Mana-  
gement Context and Concept. Houghton Mifflim  
Company, 1975*
- 55) Durall ME :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 J.B. Lippincott Company, 480, 1977*
- 56) Feldman H : *Development of the husband-wife relationship. Cornell University : Research report to National institute of marital health, Grant M-2931, 13, 1965*
- 57) Gross IH, Crandall EW and Knoll MM : *Management for Morden Families. 4th ed.,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53-154, 1980*
- 58) Haukins JA, Weisberg C and Ray DW : *Spouses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585-592, 1980*
- 59) Haukins JA, Weisberg C and Ray DW :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479-490, 1980*
- 60) Hicks MW and Platt M :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4) : 561, 1970*
- 61) Huck SW, Cormier WH, and Bounds JR. WG : *Reading statistics and research. New York : Harper and Rows Publishers, Inc., 1974*
- 62) Kimmel D and Van Der Veen F : *Factors of marital adjustment in Locks marital adjustment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 57-63, 1974*
- 63) Klemer RH :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 New York : Harper and Rows, 206, 1970*
- 64) Komarovskiy M : *Cultural Contradictions and Sex Rol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84-189, 1946를 이근후. 이동원(1973)에서 재인용.*
- 65) Larsen JA : *Remedying Disfunctional Marital Communication. Social Casework 63(1) : 16, 1982*
- 66) Martineau H : *Society in AMerica. New York : Saunders and Otlay III : 14-15, 17, 1987를 이종수역(1984).*
- 67) McClelland J : *Stress and Middle age. Journal of Home Economics November 16, 1976*
- 68) Michel A : *Wife's Satisfaction with Husbands understanding in Parisi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 351-359, 1970*
- 69) Miller PL : *Home Management Patterns of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53 : 95-99, 1961*
- 70) Notarius CI and Johnson J : *Emotional Expression in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2), 1982*
- 71) Myers GE and Myers MT :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 A Laboratory Approach. New York : McGraw Hill, Inc., 3, 1973을 송성자(1985)에서 재인용*
- 72) Rice PF :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 Allyn and Bacom Inc., 286, 1979*
- 73) Rummel RJ : *Applied factor analysis.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 74) Satir V : *Peoplemaking. California : Soience of Behavior Books, 60-73, 1972*
- 75) Schramm W : *Men Messages and Mecta : A Look at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 Harper and Row, 18, 1973*
- 76) Thomas EJ :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 Analysis, Assessment, and Change. New York : The Free Press, 13, 1979*
- 77) Udry R : *The Social Context of Marriage. Philadelphia : Lippineott, 274-275, 1966*
- 78) Williamson RC :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332, 1967*

